



채소를 직접 재배하는 베트남 소비자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채소종자 판매량 급증

베트남 언론매체(Dan Tri/2021.8.)의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채소종자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인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식당 및 운동시설 영업중지,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가정 내 체류 시간이 크게 증가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해 식품품 배송이 지연되어 식량 수급 불안감으로 인한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건강 및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증대와 식량 수급 불안감 등으로 인해 채소종자를 구매해 직접 재배하는 가정이 증가하였다. 현지 채소종자 유통업자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이전 대비 매출액은 약 60% 증가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현지 가정에는 베란다 또는 앞마당이 있어 채소를 재배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채소를 직접 재배하는 현지 소비자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채소를 길러 식재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채소를 기르는 과정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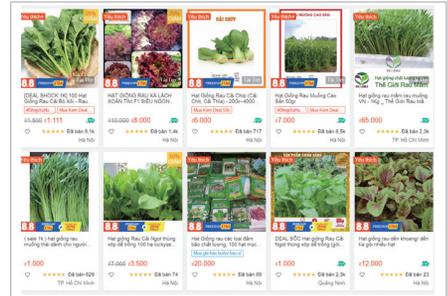
○ 가정에서 직접 재배하는 채소

베트남 채소종자 수입 및 유통 현황

농업강국으로 알려져 있는 베트남은 종자 수입을 위해 매년 약 5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수입 종자는 베트남산 대비 병충해에 강하고, 재배가 수월해 현지 농가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므로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종류로는 당근, 토마토, 양파, 상추, 무 등이다.

'20년 對베트남 한국 채소종자 수출실적은 1,055천 달러(15톤)로 수입액 기준 6위이며 무, 호박, 고추, 참외, 파, 양배추, 토마토 등이 수입되어 대부분 달랏 등 고산지대에서 재배된다. 베트남 오리온은 한국 씨감자를 수입하여 현지 농장에서 수확한 핫감자를 가공해 과자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고 있다. 베트남으로 주로 수입되는 채소종자는 태국산, 유럽산, 일본산, 뉴질랜드산 등으로 전체 비중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자재 전문매장은 직접 수입하지 않고 전문 수입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

* (Global Trade Atlas/HS Code : 채소종자/12091) '20년 기준 총 수입액은 15,011천 달러로 태국(5,448천 달러)>EU(4,403천 달러)>일본(3,372천 달러)>뉴질랜드(3,372천 달러)>중국(2,286천 달러)>한국 순



○ 다양한 종류의 채소종자(온·오프라인 매장 판매 사진)

수출국별 채소종자 가격비교

	<p>태국 판매가 15,000~50,000 팩 VND</p>		<p>네덜란드 판매가 40,000~50,000 팩 VND</p>
	<p>EU 판매가 40,000~50,000 팩 VND</p>		<p>중국 판매가 15,000~36,000 팩 VND</p>
	<p>일본 판매가 30,000~200,000 팩 VND</p>		<p>한국 판매가 30,000~36,000 팩 VND</p>

자료 aT 하노이지사 자체조사 및 shopee.vn

작성자 하노이지사 최성국

Key Point

베트남은 다양한 국가의 채소 종자를 수입·유통하고 있으므로 고급스러운 패키징 등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지에서 유기농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산 우수 유기농 채소종자의 베트남시장 진출 또한 용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베트남 기후를 고려한 종자 품종개발 및 맞춤형 생산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현지 농가 소득증대를 통해 한국산 채소종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면 對베트남 채소종자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